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권 2호 (2015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 장혜인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심다혜 · 이승연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 김상미 · 김지연 · 조종열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 김태화 · 김혜리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 주나래 · 최영은 · 조종열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 김민주 · 송현주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배민정 · 정윤경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 김은영 · 송현주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8 권 제 2 호 / 2015. 6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장혜인 / 19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다혜 · 이승연 / 41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 63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김상미 · 김지연 · 조증열 / 89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김태화 · 김혜리 / 107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주나래 · 최영은 · 조증열 / 125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김민주 · 송현주 / 14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민정 · 정윤경 / 159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김은영 · 송현주 / 175

한국발달심리학회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김 태 화

김 혜 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Carstensen, 1993)에 의하면, 노인들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지식습득이나 성취와 관련된 목표보다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우선시하게 되며, 그 결과 사실적 정보보다 정서적 정보를 중시하는 발달적 변화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치적 선택 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고려한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지를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참가자에게 가상 후보자의 연설문을 읽도록 한 후, 그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질문하였다. 20분 후, 연설문에 대한 단어 재인검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후보자 선택 여부를 결정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노인들은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한 비율이 더 높았다. 노인들은 성차가 보였는데, 남성노인들은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후보자 선택을 결정한 비율이 높지만 여성노인들은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대학생들은 선택을 위해 고려한 정보에 관계없이 사실적 정보 단어재인을 더 잘 하였지만, 노인들은 선택을 위해 고려한 정보와 일치하는 단어를 더 잘 재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한다.

주요어 : 정치적 선택, 정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노인

[†] 교신저자: 김혜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N15동 460호
E-mail: hrghim@chungbuk.ac.kr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결정이나 선택을 한다. 선택으로 인하여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후회하기도 한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나 선택은 사회, 소비,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능력이지만(Hess, Beale, & Miles, 2010), 흔히 연령이 증가하면 결정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인지적 자원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일상적 판단을 할 때 젊은 성인보다 체계적인 처리가 덜 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Hess, Leclerc, Swaim, & Weatherbee, 2009).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노인들의 결정이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Yoon, Cole, & Lee, 2009).

그러나 노인의 판단이나 결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선택 기준이나 인생목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젊은 성인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모험하려는 동기가 높지만 노인은 미래에 대한 관심은 줄고 현재의 정서적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정서 상태가 더 중요하게 되면서(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노인과 젊은 성인은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즉,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은 남은 인생 기간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목표와 동기가 적응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남은 시간의 제한성을 인식하면 다양한 분야의 견문을 쌓고 지식을 획득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립하려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보다 현재의 정서 상태를 최적화하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중시하는 정서적이며 현재 지향적 목표가 우선순

위가 된다는 것이다(Löckenhoff & Carstensen, 2004). 선택 상황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고려한 후 결정(백해정, 2004)하기 때문에 노인들과 젊은 성인의 서로 다른 삶의 동기가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쳐서 선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노인이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상과제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Carstensen와 Turk-Charles(1994)은 20 ~ 83세 사이의 성인들에게 정서적인 내용과 중립적 내용이 섞인 글을 읽게 한 후, 회상하게 하였는데 노인은 기분이나 정서와 관련된 정서적 회상을 정서적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중립적 회상보다 더 많이 하였다. 또 회상한 내용 중 정서적 회상의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노인들에게 정서적 정보는 기억의 정교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May, Rahhal, Berry 및 Leighton(2005)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했다. 음식이 나오는 위치(왼쪽/오른쪽)가 사실적 정보인 음식의 온도를 의미하는 조건과 음식이 나오는 위치가 정서적 정보인 음식을 먹게 될 손님의 안전 여부를 의미하는 조건으로 나누어서 기억한 정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노인은 젊은 성인보다 사실적 정보 회상은 더 적었지만 정서적 정보는 젊은 성인만큼 잘 기억했다. 이는 정서적 정보가 노인들에게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기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휴가에서 경험했던 일을 회상한 내용으로 노인과 젊은이의 기억을 비교한 연구에

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Gould & Dixon, 1993). 젊은 부부 10쌍과 노부부 10쌍에게 지난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회상하여 말하도록 한 결과 노부부가 회상하는 정보에는 휴가 장소나 사람들에 대한 정서와 관련된 묘사가 많았지만, 휴가의 일정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은 적었다. 이에 반해 젊은이들은 노인보다 회상하며 설명한 내용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설명과 사실적 설명을 유사한 정도로 하였다. 이는 노인의 기억이 젊은이에 비해 떨어지지만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기억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짐을 보여준다.

노인의 주의를 정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선호하는 정보에서도 나타난다. 정보는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판단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로 Fung과 Carstensen(2003)은 연령에 따른 목표와 동기의 변화가 선호하는 광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제품에 대한 정서적 광고와 사실적 광고를 제공하고 선호하는 광고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노인들은 젊은 성인들보다 정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광고를 더 선호하였다. 하지만 수명이 20년 더 연장되었다고 가정하라고 하였을 때는 정서적 정보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령에 따른 동기와 목표의 변화가 선호하는 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ung과 Carstensen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Drolet 등(2007)은 노인의 정서적 정보에 대한 선호는 상품의 종류에 무관하게 일반적임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젊은 성인은 쾌락적 제품(예를 들어, 향수)은 정서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실용적 제품(예를 들어, 투자 서비스)은 합리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으나, 노인은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 모두 정서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이는 노인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서적 정보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대부분 좋은 선택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은 정보가 적은 상황을 선호하고 획득하려고 하며(Reed, Mikels, & Simon, 2008) 문제해결을 위해 인지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전략을 사용하기(Geary, Frensch, & Wiley, 1993) 때문에 좋은 의사결정자가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Mikels, Maglio, Reed 및 Kaplowitz(2011)는 인지적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이성적 판단만큼 정서적 전략에 기초한 판단도 좋은 선택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Mikels, Löckenhoff, Maglio, Carstensen, Goldstein 및 Garber(2010)는 정서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노인들이 선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의료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에서, 의사 이름, 의료 계획 등 정보를 제공한 뒤에 일부 사람에게는 정보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택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보의 세부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젊은 성인은 정서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보다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하지만 노인은 정보에 초점을 맞춘 경우보다 정서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을 하는 것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

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보았듯이, 젊은 성인과는 달리 노인들이 사실적 정보보다 정서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중시한다면 이러한 노인의 특징은 사회적 삶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분야의 하나가 정치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정치 분야일 수 있다. 노년기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은 시기(박재간, 이인수, 2001), 정치참여의 일환으로 노인들은 정치지도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적극 참여한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대 대선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50대(82.0%)와 60세 이상(80.9%)이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40대부터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율도 낮아졌다. 이처럼 노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중시하는 정보가 젊은 성인들과 다르다면 정치지도자 선출이나 사회정책의 결정이 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인이 젊은 사람에 비해 정서적 정보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Drolet et al., 2007)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중시한다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으로 미루어보면, 선거운동기간에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정서적 정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노년층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 결과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어 노인들의 선택이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노인들이 정치참여를 할 때,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정보를 중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인지과제를 수행하거나 상품에 대한 광고에 주의할 때와 같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에도 노인들이 정서적 정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에 따라 미래에 대한 관심이나 새로운 지식습득, 성취와 관련된 목표보다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우선시하여 사실적 정보보다 정서적 정보를 중시하게 되는 노인의 인지적 특성이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국가 선거 중 가장 대표적이고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통령 선거 상황을 선정하였다. 대선에 출마한 가상의 후보자에 대한 정서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가 담긴 대통령 후보 연설문을 읽고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노인과 젊은 성인이 고려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인과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또 후보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 정보가 고려하지 않은 정보보다 더 많이 기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어 재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후보 선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대학생들은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은 정서적 정보에 관한 단어를 더 잘 재인하지만 대학생들은 사실적 정보에 관한 단어를 더 잘 재인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중부권의 대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41명의 대학생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43명이 참여하였다. 대학생 집단의 연령은 만 19 ~ 26세로 평균 21세 3개월이었다. 노인 집단의 연령은 만 65 ~ 80세로 평균 72세 5개월이었다.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참가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연설문을 읽고 실제의 특정 정치인이 생각난다고 보고하거나(1명), 중간에 참여 의사가 없어졌거나(1명) 무성의하게 응답한 참가자(1명)를 제외한 대학생 40명(남자 20명, 여자 20명)과 노인 40명(남자 20명, 여자 2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연설문

정치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서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 중 어떤 정보를 고려하여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 가상의 후보자에 대한 연설문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연설문은 성장배경과 성장 과정에서 느낀 경험으로 구성된 정서적 정보(예: 생선냄새 나는 어머니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와 공약으로 구성된 사실적 정보(예: 복지 분야를 위한 예산을 5년간 10%이상 증가시켜 편성하겠습니다.)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 각각 8가지(8가지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사용하여 두 종류의 연설문을 제작하였다. 즉,

성장배경과 경험에 관한 정서적 정보가 먼저 나오는 연설문과 선거공약에 관한 사실적 정보가 먼저 나오는 연설문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연설문에서 정서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를 기술하는데 사용된 단어 수는 각각 106개, 98개로 비슷하게 맞추었다. 연설문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연설문의 정서적 정보(성장배경, 경험)에 대해서는 정서가 느껴지지만 사실적 정보(선거공약)에 대해서는 정서가 느껴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에 재학 중인 81명의 대학생(남 34명, 여 47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정서가 느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장 배경과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에 관한 정서적 정보가 제시된 연설문 부분과 복지 정책 공약과 청년 정책 공약에 관한 사실적 정보가 제시된 연설문 부분을 각각 제시하여 정서가 느껴지는지 질문하였다. 사실적 정보와 정서적 정보에 대해 정서가 느껴진다고 답한 사람 수와 그 비율 및 정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 수와 비율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성장배경에 대해서는 81명 중 70명(86.4%)이, 성장 과정에서 느낀 경험에 대해서는 52명(65.0%)이 정서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복지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27명(33.3%)만 정서가 느껴진다고 하였고 청년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31명(38.2%)만 정서가 느껴진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정서가 느껴진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정서적 정보에 대해서는 연민, 따뜻함, 희망, 감동, 슬픔과 같은 정서가 느껴지고 사실적 정보에 대해서는 기대, 불신, 회의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정서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이 정서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표 1. 연설문에 제시된 정서적, 사실적 정보에 대해 정서경험을 보고한 사람 수와 그 비율

연설문 내용		정서 느껴짐	정서 안 느껴짐	전체
성장배경	<i>N</i>	70	11	81
	(%)	86.4	13.6	100.0
경험	<i>N</i>	52	28	80
	(%)	65.0	35.0	100.0
정서 정보 전체	<i>N</i>	122	39	161
	(%)	75.8	24.2	100.0
복지정책공약	<i>N</i>	27	54	81
	(%)	33.3	66.7	100.0
청년정책공약	<i>N</i>	31	50	81
	(%)	38.2	61.7	100.0
사실 정보 전체	<i>N</i>	58	104	162
	(%)	35.8	64.2	100.0

$\chi^2(3, N = 81) = 60.18, p < .001$

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 N=81) = 60.18, p < .001$. 성장배경과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은 정서가 느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정서적 정보로서 적절하며, 공약에 대해서는 정서가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사실적 정보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어재인 검사

대선에 출마한 가상의 후보자에 관한 정서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어 재인 검사를 하였다. 연설문에서 사실적 정보로 제시되었던 단어(예: 복지)와 정서적 정보로 제시되었던 단어(예: 후회)를 각각 10개씩 선정한 후에, 연설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서적 정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어 10개(예: 당당한)와 사실적

정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어 10개(예: 노령연금)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40개의 단어가 무선 순서로 제시되는 검사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에게 검사지에 제시된 40개 단어를 보면서 연설문에 나왔던 단어를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정확하게 고르면 단어 한 개 당 1점씩 주었다. 연설문에서 사실적 정보로 제시되었던 사실단어와 정서적 정보로 제시되었던 정서단어가 각각 10개씩 검사문항에 포함되었으므로, 사실단어 문항과 정서단어 문항의 재인점수는 최고 10점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 대해 연구자의 소속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

하였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대학생들 중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들은 복지관이나 집으로 방문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연설문을 읽은 후에 연설문과 관련된 2가지 질문을 할 것임을 참가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단어재인 검사가 실시될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단어재인 검사가 실시될 것을 미리 알면 참가자들이 의도적으로 연설문을 외우려고 할 것이므로, 재인검사 점수가 사람들이 선호하고 주의하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단어재인 검사에 대해 사전에 말하지 않았다.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상의 대선 후보자의 성장배경이 먼저 나오는 연설문 또는 공약이 먼저 나오는 연설문 중 한 가지를 참가자에게 제시하여 읽도록 하였다. 두 연령집단에서 무선적으로 참가자의 1/2에게는 성장배경이 먼저 나오는 연설문을 제시하였고 다른 1/2에게는 공약이 먼저 나오는 연설문을 제시하였다.

참가자가 연설문을 읽은 후에 먼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투표를 해야 한다면 이 후보자를 뽑아줄 의향이 있으신가요?'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왜 이 후보자를 뽑으실 건가요?' 또는 '왜 이 후보자를 뽑지 않을 건가요?'라고 후보자 선택을 결정한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후보자를 뽑지 않는다고 선택한 경우, '이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연설문을 읽고 두 가지 질문에 응답한 후,

참가자들은 20분 동안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후, 단어 재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에게 검사지에 인쇄된 40개 단어 목록 중에서 연설문에 나왔던 단어를 고르도록 하였다.

과제 설명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연구 진행에 총 35 ~ 40분이 소요되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먼저 후보자 선택 판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류하였다. 후보자 선택 판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연설문의 정서적 정보에 있는지 사실적 정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서적 이유로 판단한 경우는 정서적 정보에 근거한 판단으로, 사실적 이유로 판단한 경우는 사실적 정보에 근거한 판단으로 코딩하였다. 쉽게 분류할 수 없는 답변(예를 들어, 연설문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며 특히, 감성에만 호소하고 있는 느낌이며 연설문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와 닿지 않음)은 2명의 연구자가 논의를 하여 판단의 근거를 분류하였다. 정서적 정보에 더 많은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는 참가자의 답변은 정서적 정보에 근거한 판단으로, 사실적 정보에 더 많은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는 답변은 사실적 정보에 근거한 판단으로 코딩하였다. 참가자의 답변이 쉽게 분류할 수 없어서 논의를 통해 답변의 근거를 결정한 사례는 80개 중 10개였다(12.5%).

후보자 선택을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판

단한 빈도와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빈도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근거가 정서적 정보인지 사실적 정보인지에 따라 정서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를 기억하는 정도가 다른지 또 그 정도가 연령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재인점수를 연령, 판단근거와 재인검사 문항(사실단어, 정서단어)의 3요인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판단근거의 차이 분석

연령과 성별에 따른 후보자 선택에 대한 판단 근거(정서, 사실)의 빈도와 비율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 각각 20명 중 18명이 사실적 정보, 즉 공약을 보고 대통령 후보 선택 여부를 판단하였고, 2명이 정서적 정보, 즉 후보자의 어린 시절이나 성장배경을 보고 대통령 후보 선택 여부를

표 2. 정서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후보자 선택을 판단한 사람 수와 비율(()는 %임)

		판단 근거	
		정서적 정보	사실적 정보
대학생	남성	2 (10)	18 (90)
	여성	2 (10)	18 (90)
	전체	4 (10)	36 (90)
노인	남성	4 (20)	16 (80)
	여성	13 (65)	7 (35)
	전체	17 (42.5)	23 (57.5)

판단하였다. 노인의 경우, 남자는 20명 중 16명이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대통령 후보 선택 여부를 판단하였고 4명은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한 것에 비해, 여자는 20명 중 13명이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대통령 후보 선택 여부를 판단하였고, 7명은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노인과 대학생의 대선 후보자 선택에 대한 판단근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았다. 종속변인인 판단근거가 두 가지(정서적 정보, 사실적 정보) 범주로 구분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Wals = 10.230, p < .05$, 성별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Wals = 7.555, p < .05$. 그러나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Wals = 2.447, p = .135$. 즉, 노인은 사실적 정보보다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더 많이 하였으나 대학생은 정서적 정보보다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더 많이 하였다. 또 남성은 정서적 정보보다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더 많이 하였으나 여성은 사실적 정보보다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더 많이 하였다.

연령과 판단근거 및 재인검사 문항에 따른 재인점수의 차이 분석

성별과 연령, 판단근거 및 재인검사 문항에 따라 재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인점수를 성별과 연령, 판단근거 및 재인검사 문항의 4요인으로 변량분석하였다. 재인검사 문항은 참가자 내 변인이었다. 변량분석 결과,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을 포함한 모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미하지 않아, $F(1, 76) < 2.217, p > .141$, 성별을 제외하고 3요인만으로 변량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표 3에 연령과 판단근거 및 재인검사 문항별 재인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재인점수를 연령과 판단근거 및 재인검사 문항의 3요인으로 변량분석한 결과, 재인검사 문항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1, 76) = 6.795, p < .05$, 연령과 재인검사 문항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F(1, 76) = 4.079, p <$

.05. 그러나 판단근거와 재인검사 문항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76) = 1.663, p = .201$. 그리고 재인검사 문항과 연령 및 판단근거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1, 76) = 5.114, p < .05$. 재인검사 문항과 연령 및 판단근거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재인검사 문항의 단순주효과가 유의하였지만, $F(1, 38) = 9.604, p < .05$, 판단근거와 재인검사 문항의 단순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연령과 후보자 선택의 판단근거 및 재인검사 문항별 재인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판단근거	재인검사 문항	
		정서단어	사실단어
대학생	정서적 정보	6.00 (1.63)	8.00 (1.41)
	사실적 정보	6.72 (1.85)	8.03 (1.91)
	전체	6.65 (1.81)	8.03 (1.85)
노인	정서적 정보	5.53 (2.09)	4.29 (1.40)
	사실적 정보	4.78 (2.28)	6.26 (2.56)
	전체	5.02 (2.19)	5.43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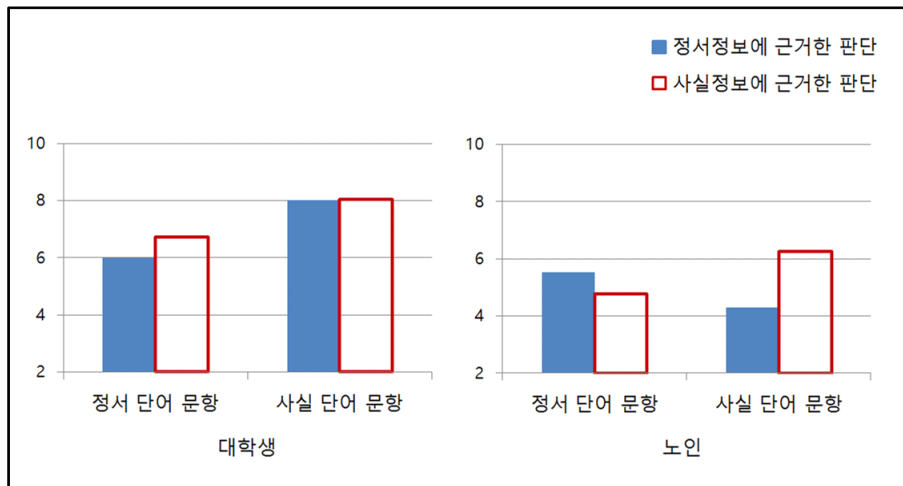


그림 1. 단어 재인점수에 대한 연령과 판단근거 및 단어재인 검사문항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R(1, 38) = .424, p = .519$. 즉, 대학생들은 후보자 선택에 대한 판단을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였든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였든 정서단어보다 사실단어를 더 잘 재인하였다. 이에 반해 노인 집단에서는 판단근거와 재인검사 문항의 단순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R(1, 38) = 9.462, p < .05$. 즉, 노인들은 후보자 선택을 어떤 근거에 의해 판단했는지에 따라 정서단어 재인점수와 사실단어 재인점수가 달랐다.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는 사실단어 재인점수보다 정서단어 재인점수가 더 높았으나,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단어 재인점수가 더 높았다.

논 의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할 것이라 여겨지는 것과 달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노인들이 부정적 경험을 덜 하고 (Carstensen, 1995), 과거보다 현재의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Ågren, 1998).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 시절과 달리 정서적인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이가 들면서 지식습득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목표보다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우선시하게 되어, 특정 대선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상황에서도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는지 알아보았다. 또 나이가 들수록 사실적 정보보다 정서적 정보를 중시한다면 노인들은 대통령 후보의 연설문에서도 정서적인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제로 연설문의 정서적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 후보자 선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정보가 노인과 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한 비율은 대학생에 비해 노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 그리고 노인 집단의 경우, 선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한 정보가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노인은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 여부를 판단한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 노인은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 여부를 판단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대학생 집단은 정서적 정보보다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후보자 선택여부를 판단한 비율이 더 높고, 여성 노인은 사실적 정보보다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은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또한 젊은 시절과 달리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의 가정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남성 노인이 후보자 선택 여부를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더 많이 판단한 것은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과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자신이 주의를 기울인 내용을 더 잘 기억할 것이므로, 노인이 사실적 정보보다 정서적 정보에 더 주의한다면 노인은 연설문에서 사실적 정보로 제시되었던 사실단어보다 정서적 정보로 제시되었던 정서단어를 더 잘

기억할 것이다. 반면 대학생은 사실단어를 더 잘 기억할 것이다.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재인점수는 노인들이 대학생보다 낮았다.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기억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Denburg, Buchanan, Tranel & Adolphs,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단어재인검사에서 나타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노인들은 후보자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보다 더 잘 기억하였으나 대학생은 고려한 정보와는 무관하게 사실적 정보를 더 많이 기억했다는 것이다.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후보자 선택을 판단한 노인은 정서단어 재인점수가 사실단어 재인점수보다 높았으며,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한 노인은 사실단어 재인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노인들이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인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였음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들은 사실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사회 정서 선택이론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 하였지만, (Carstensen, & Turk-Charles, 1994; May, Rahhal, Berry & Leighton, 2005)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도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위해 정보를 고려할 때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은 판단을 위해 고려한 정보와는 상관없이 정서단어보다 사실단어를 더 많이 재인하였다. 이는 젊은 나이에는 사실적 정보에 더 주의한다고 보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집단과 여성 노인 집단의 후보선택 판단근거나 사실단어와 정서단어에 대한 기억수준은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과 일치하나 남성 노인 집단의

수행은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에 맞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이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정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한국 노인이 공약과 관련된 사실정보에 근거하여 대선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판단한 것은 가부장적 전통의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장인 남성이 가정 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백지은, 2008). 요즘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부부의 가사분담으로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주로 가정을 통해 성역할 정체성을 획득한다(이우경, 방희정, 2008). 즉, 남성은 합리적이고 독립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특성이 있어야 하고 여성은 순종적이고 남을 잘 배려하며 감정적인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현, 2011). 특히 성역할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노인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이신숙, 1997). 성역할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온 한국노인들은 성역할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기가 되어서도 정서적인 목표가 중요해져가는 것에 순응하기보다 이전의 행동방식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과 같이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개인주의적 가치관

을 배경으로 하는 서구에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2011), 문화권이 다른 한국의 노인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서적 정보에 대한 선호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결정해야 할 때에는 약화되어서 남성 노인들이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노인들이 항상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Löckenhoff와 Carstensen(2008)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자신이나 또래를 위해 의료행위를 선택 할 때는 정서적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의료행위를 선택 할 때는 정서적 요소를 검토하는 정도가 적어졌다. 정치적 활동은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이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후보자 선택 문제를 판단한 것은 Löckenhoff와 Carstensen(2008)의 연구와 보여주듯이 대학생들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떤 근거에서 후보선택에 대한 판단을 했는지 물었을 때, 자신의 이익보다 대학생의 이익을 고려하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예: 복지가 증가할수록 대학생에게 부담이 됨)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이 사실적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비율이 높았던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성들이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이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의 이익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현재의 정서적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동기와 목적이 강해진다고 보는 사회 정

서적 선택이론(Carstensen, 1993, 1995)이 한국 노인들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이 한국 노인들의 정서 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부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은 정서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하므로 중립적인 자극보다 긍정적인 자극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서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극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Mather & Carstensen, 2003)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선규, 강표신, 이태호(2009)의 연구에서는 탐지해야 할 탐침이 긍정-중립 표정의 얼굴 쌍 중 긍정 표정 얼굴보다 중립표정 얼굴에 제시되었을 때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행복한 얼굴 표정에 가까이 하기보다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고선규 등(2009)의 연구에서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이 한국 노인들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이 한국 남성 노인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남성들이 노년기에도 정서적인 것을 크게 중시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이 가부장적 문화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의 노인과 한국노인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같이 한국과 비슷한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한다면,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남성 노인들은 정서적인 것이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노인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것은 대선 출마 후보자에 대한 선택이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특히 정치적 관심이 높은 남성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선택 상황에서는 노인도 정서적 정보보다 사실적 정보를 더 고려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판단해야 할 상황과 중요한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고려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이 한국에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설문에 포함된 사실적 정보와 정서적 정보의 내용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정서적 정보는 후보자의 어린 시절이나 성장하며 겪은 경험들로 사람들에게 쉽게 읽히거나 친숙하게 여겨지는 내용이었다. 이에 반해 사실적 정보는 주로 청년실업이나 경제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쉽거나 친숙한 내용들은 아니었다. 친숙한 내용의 정보가 더 잘 기억되고 활용하기 쉬운 것이므로, 연설문의 사실적 정보와 정서적 정보의 난이도와 친숙성 차이는 어떤 형태로든 후보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실적 정보와 정서적 정보의 난이도와 친숙성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노인이 어떤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성별에 따른 학력 차이가 있었다. 남성 노인의 경우 고졸 20%, 대졸 이상이 75%였지만, 여성 노인은 고졸 31.8%, 대졸 이상이 18.2%였다. 이처럼 노인 참가자의 학력 차이가 존재하지만 참가자 중 중졸과 고졸 학력을 가진 여성 노인의 35%가 사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선택한 것을 제외하면 65%의 다양한 학력을 가진 여성 노인들이 정서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학력의 차이가 선택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자 선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가 남성과 여성 노인 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노인의 학력을 통제 한 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의의는 노인발달에 대한 기초연구가 산업분야나 정치분야 등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노인들은 대학생에 비해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노인층의 선택과 지지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선거 운동이나 상품 광고에서 강조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의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고선규, 강효신, 이태호 (2009). 정서 얼굴에 대한 노인의 선택적 주의 과정 특성.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8(1), 81-96.
- 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 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 박재간, 이인수 (2001). 우리나라 노인의 정치

- 참여의 과제-사회활동에 관한 국내외 고찰과 미래를 위한 제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73-197.
- 백지은 (2008).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한국노년학*, 28(2), 227-249.
- 백혜정 (2004). 우리나라 성인들의 실생활 갈등상황 해결에서의 도덕지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123-140
-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35-54.
- 유 경, 민경환 (2005).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 복잡성의 변화가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5(4), 189-203.
- 이신숙 (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70-85.
- 이우경, 방희정 (2008). 성인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애(慈愛), 심리적 안녕감 및 심리 증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27-146.
- 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현 (2011).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남자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2(2), 559-576.
- Ågren, M. (1998). Life at 85 and 92: A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of how the oldest old experience and adjust to the increasing uncertainty of exist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2), 105-117.
- Carstensen, L. L. (1993). Motivation for social contact across the life span: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40, 209-254.
- Carstensen, L. L. (1995). Evidence for a life-span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5), 151-156.
- Carstensen, L. L., & Turk-Charles, S. (1994). The salience of emotion across the adult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9(2), 259-264.
- Carstensen, L. L., Fung, H. H., & Charles, S. T. (2003).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the second half of life. *Motivation and Emotion*, 27(2), 103-123.
- Denburg, N. L., Buchanan, T. W., Tranel, D., & Adolphs, R. (2003). Evidence for preserved emotional memory in normal older persons. *Emotion*, 3(3), 239-253.
- Drolet, A., Williams, P., & Lau-Gesk, L. (2007). Age-related differences in responses to affective vs. rational ads for hedonic vs. utilitarian products. *Marketing Letters*, 18(4), 211-221.
- Fung, H. H., & Carstensen, L. L. (2003). Sending memorable messages to the old: age differences in preferences and memory for advertis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163-178.
- Geary, D. C., Frensch, P. A., & Wiley, J. G. (1993). Simple and complex mental subtraction: Strategy choice and speed-of-processing differences in younger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8(2), 242-256.
- Gould, O. N., & Dixon, R. A. (1993). How we spent our vacation: Collaborative storytelling by young and old adults. *Psychology and Aging*, 8(1), 10-17.
- Hess, T. M., Beale, K. S., & Miles, A. (2010).

- The impact of experienced emotion on evaluative judgments: The effects of age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Aging, Neuropsychology, and Cognition*, 17(6), 648-672.
- Hess, T. M., Leclerc, C. M., Swaim, E., & Weatherbee, S. R. (2009). Aging and everyday judgments: the impact of motivational and processing resource factors. *Psychology and Aging*, 24(3), 735-740.
- Löckenhoff, C. E., & Carstensen, L. L. (2004).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aging, and health: The increasingly delicate balance between regulating emotions and making tough choices. *Journal of Personality*, 72(6), 1395-1424.
- Löckenhoff, C. E., & Carstensen, L. L. (2008). Decision strategies in health care choices for self and others: Older but not younger adults make adjustments for the age of the decision targe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2), 106-109.
- May, C. P., Rahhal, T., Berry, E. M., & Leighton, E. A. (2005). Aging, source memory, and emotion. *Psychology and Aging*, 20(4), 571-578.
- Mikels, J. A., Löckenhoff, C. E., Maglio, S. J., Carstensen, L. L., Goldstein, M. K., & Garber, A. (2010). Following your heart or your head: focusing on emotions versus information differentially influences the decisions of younger and older adul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6(1), 87-95.
- Mikels, J. A., Maglio, S. J., Reed, A. E., & Kaplowitz, L. J. (2011). Should I go with my gut? Investigating the benefits of emotion-focused decision making. *Emotion*, 11(4), 743-753.
- Reed, A. E., Mikels, J. A., & Simon, K. I. (2008). Older adults prefer less choice than young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3(3), 671-675.
- Yoon, C., Cole, C. A., & Lee, M. P. (2009). Consumer decision making and aging: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9(1), 2-16.
- 1차원고접수 : 2015.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2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9

Difference in the information considered in a political choice situation between Korean elderly and college students

Tae-Hwa Kim

Hei-Rhee Gh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Carstensen, 1995), older people focus more on emotional information than on factual information because emotionally meaningful goals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knowledge-related goals as the perceived remaining time to live diminishes with ag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test whether the types (emotional vs. factual) of information one considered in a political choice-making situation differed according to age. After reading the candidate's speech, each elderly adult and college student was asked whether s/he was going to choose the candidate and to justify her/his decision. The rate of factual decisions (decisions based on factual information) was higher in both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in elderly men, and the rate of emotional decisions was higher in elderly women. When a word-recognition test was administered after 20 minutes, college students showed better recognition of factual words than emotional words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ormation they considered in decision-making. In contrast, the elderly adults showed better recognition of words consistent with the type of information they considered in decision-making. The present results partially support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Key words : political decision, information,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elderly

부 록

본 연구에 사용된 연설문 예시

1)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생선 좌판 장사를 하시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2)어린 마음에 생선 냄새 나는 어머니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3)어머니께서는 어렵게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는데, 가게를 얻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4)어리석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야 어머니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그런데 5)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만난 어머님들이 맞잡아 주시는 손에서 거칠지만 따뜻했던 저의 어머니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아 행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저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더 이상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8)모두가 분하고 서러운 일들로 인하여 세상살이가 팍팍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①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②복지 분야를 위한 예산을 5년간 10% 이상 증가시켜 편성하겠습니다. ③주요 거점 지역에 ‘어르신행복건강센터’를 세워 노인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④복지 분야의 공무원을 3배로 확대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겠습니다. ⑤경제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도 해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⑥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여 지역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지역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⑦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추진하고 청년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⑧2.9%의 학자금 대출 이자 삭감부터 시작하여 5년 내에 반값 등록금 현실화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은 8가지 정서적 정보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은 8가지 사실적 정보이다.